

##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

- 출시 이후 3주간(3.27~4.14일, 15일간) 총 15,739명에게 평균 61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누적 공급액 96.4억원)
  - 대출 지원뿐 아니라 15,726건의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 예금 찾기, 채무자대리인 연계 안내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
- 금융권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표명
-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금년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이 3주간(3.27~4.14일) 총 1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누적 총 지원규모는 96.4억원이다.

<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예약	상담	대출	50만원	50만원 초과	평균 대출액	지원규모
<b>1주차</b> (3.27~3.31)	6,250	5,747	5,499	3,874	1,625	64만원	35.1억원
<b>2주차</b> (4.3~4.7)	6,469	5,483	5,255	4,023	1,232	61만원	31.9억원
<b>3주차</b> (4.10~4.14)	6,437	5,194	4,985	4,003	982	59만원	29.5억원
<b>누 계</b>	19,156	16,424	<b>15,739</b>	11,900	3,839	<b>61만원</b>	<b>96.4억원</b>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 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자활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15,726건의 복합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복합상담 지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채무 조정	복지 연계	취업 지원	휴면 예금	불사금 신고	채무자 대리인	합계
<b>1주차</b> (3.27~3.31)	2,242	1,298	583	593	48	500	5,264
<b>2주차</b> (4.3~4.7)	1,914	1,200	470	755	91	1,158	5,588
<b>3주차</b> (4.10~4.14)	1,646	864	284	713	97	1,270	4,874
<b>누 계</b>	5,802	3,362	1,337	2,061	236	2,928	<b>15,726</b>

금년중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의 신청 현황을 감안할 때 기마련된 재원으로는 연말이 되기 전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혔다. 금번 기부금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한 것으로, 국회 지적 등에 따라 '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회수금액-채권매입대금-관리비용)

4.19일 기준, 배분 유보되고 있는 초과회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 은행 181억원(13개사), 보험사 48.3억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2억원(62개사), 대부업체 1.3억원(12개사)

이 밖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중인 금융회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기부 의향 금융회사는 향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기부 의향이 확정된 263억원 + 향후 기부 예상금액 377억원 = 640억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을 토대로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없이 지속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현재까지 기부 의향 금융회사 현황(4.19일 기준)

< 기부 의향 금융회사 현황 (4.19일 기준, 단위 : 원) >

순번	업권	금융기관	기부금
1	은행	국민은행	9,782,464,001
2	보험	서울보증보험	4,793,065,661
3	은행	신한은행	2,094,569,795
4	은행	하나은행	1,950,595,923
5	은행	우리은행	1,604,985,495
6	캐피탈	롯데캐피탈	1,329,448,131
7	은행	농협은행	857,761,451
8	은행	부산은행	532,718,251
9	은행	전북은행	360,390,701
10	은행	광주은행	355,444,031
11	은행	경남은행	318,861,416
12	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217,800,881
13	캐피탈	하나캐피탈	217,296,465
14	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210,439,400
15	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193,049,239
16	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178,385,680
17	은행	제주은행	177,036,809
18	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143,340,486
19	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111,560,952
20	저축은행	IBK저축은행	81,905,136
21	캐피탈	KB캐피탈	81,694,550
22	캐피탈	OK캐피탈	69,110,318
23	카드	BC카드	56,732,488
24	은행	HSBC 서울지점	54,572,236
25	은행	수협은행	50,413,268
26	대부업	어프로치	48,328,825
27	대부업	씨씨컬렉션	36,895,036
28	상호금융	신협 이천	34,034,042
29	보험	농협생명보험	26,656,896
30	상호금융	신협 세종우리	21,504,993
31	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19,779,638
32	상호금융	신협 믿음	17,378,807
33	대부업	(주)에이원대부캐피탈	15,381,378
34	상호금융	신협 전주중산	12,855,760
35	상호금융	신협 울산행복	11,186,665

순번	업권	금융기관	기부금
36	상호금융	신협 비사벌	9,955,382
37	상호금융	신협 오산	8,034,947
38	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7,962,988
39	상호금융	신협 영월	7,786,428
40	캐피탈	M캐피탈	7,640,816
41	캐피탈	코스모캐피탈	7,553,049
42	보험	KB손해보험	7,501,776
43	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7,144,199
44	대부업	아프로파이낸셜(주)	7,060,073
45	대부업	스타크레딧	7,059,176
46	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7,028,431
47	캐피탈	애큐온캐피탈	6,624,828
48	대부업	원캐싱	6,300,000
49	상호금융	신협 옥천	6,080,715
50	상호금융	신협 사북	5,779,422
51	상호금융	신협 서울약사	4,781,667
52	상호금융	신협 관악	4,616,102
53	상호금융	신협 괴산	4,547,494
54	대부업	리드코프	4,362,310
55	상호금융	신협 원광중앙	3,900,521
56	상호금융	신협 청주	3,767,009
57	상호금융	신협 장연	3,728,171
58	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3,630,112
59	상호금융	신협 증평	3,242,074
60	상호금융	신협 청십자	3,015,351
61	대부업	유아이크레딧	3,009,035
62	상호금융	신협 밀양	2,960,791
63	상호금융	신협 고한	2,827,506
64	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2,810,945
65	상호금융	신협 삼청	2,667,641
66	상호금융	신협 부산시약사	2,645,403
67	상호금융	신협 은평	2,643,492
68	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2,642,277
69	대부업	미즈사랑	2,611,346
70	상호금융	신협 청주중부	2,442,968

순번	업권	금융기관	기부금
71	상호금융	신협 신우	2,257,716
72	보험	롯데손해보험	2,208,997
73	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2,081,257
74	상호금융	신협 덕양	2,070,863
75	상호금융	신협 대전한일	1,882,313
76	저축은행	BNK저축은행	1,881,580
77	상호금융	신협 계산	1,805,816
78	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748,067
79	상호금융	신협 보은	1,622,829
80	상호금융	신협 신목	1,607,226
81	상호금융	신협 충주에덴	1,533,465
82	상호금융	신협 의정부	1,507,728
83	상호금융	신협 광혜원	1,431,623
84	상호금융	신협 호성	1,415,613
85	상호금융	신협 평택은실	1,395,142
86	상호금융	신협 소사	1,208,364
87	보험	푸본현대생명	1,167,650
88	상호금융	신협 마장	1,158,855
89	상호금융	신협 입하	1,134,679
90	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1,131,598
91	상호금융	신협 잠실	1,124,352
92	은행	SC제일은행	1,019,632
93	대부업	하트캐싱	880,214
94	상호금융	신협 은곡	871,649
95	상호금융	신협 제천북부	853,022
96	상호금융	수협(지역) 삼척	849,009
97	캐피탈	KDB캐피탈	832,354
98	상호금융	신협 새서울	732,153
99	상호금융	신협 덕촌	728,088
100	대부업	아이엠에셋대부	595,535
101	상호금융	신협 현대제철	587,223
102	상호금융	신협 국일	576,274
103	상호금융	신협 갈산삼익	571,532
104	상호금융	신협 등촌	564,213
105	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557,851

순번	업권	금융기관	기부금
106	상호금융	신협 감물	556,880
107	상호금융	수협(지역) 완도금일	424,639
108	상호금융	신협 청천	343,688
109	상호금융	신협 부평	343,226
110	상호금융	수협(지역) 죽변	336,178
111	상호금융	신협 솔빛	332,496
112	상호금융	신협 연동	288,051
113	대부업	굿타이밍	278,875
114	상호금융	신협 석암	257,462
115	상호금융	신협 제천서부	211,560
116	상호금융	신협 장위	197,368
117	카드	현대카드	84,057
118	상호금융	신협 서울영암교회	69,732
119	상호금융	신협 음성	63,574
120	상호금융	신협 신한일전기	12,146
121	상호금융	신협 서인천	3,818
계			26,291,407,481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서지은 (02-2100-2611)
<공동>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	책임자	본부장	김진휘 (02-2128-8180)
		담당자	부 장	김금석 (02-2128-8085)
<공동>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	책임자	국 장	신승주 (02-2128-8170)
<공동>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지원본부	책임자	본부장	안수진 (02-2128-8300)
		담당자	부 장	박장구 (02-2128-8305)
<공동>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	책임자	본부장	유재욱 (02-2128-8010)
		담당자	부 장	심재철 (02-2128-8015)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본부장	김경민 (02-3705-5050)
		담당자	부 장	박영상 (02-3705-5704)
<공동>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김인호 (02-2262-6645)
		담당자	부 장	유제상 (02-2262-6624)
<공동>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김지훈 (02-3702-8524)
		담당자	부 장	박상조 (02-3702-8571)
<공동>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상 무	김민기 (02-2011-0711)
		담당자	부 장	김효석 (02-2011-0743)
<공동>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이경연 (02-397-8617)
		담당자	부 장	양희경 (02-397-8680)
<공동>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민경대 (042-720-1341)
		담당자	부 장	한상원 (042-720-1355)
<공동>	농협중앙회	책임자	부 장	이희운 (02-2080-7820)
		담당자	팀 장	채운병 (02-2080-7806)
<공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박준철 (02-2145-9480)
		담당자	부 장	장석남 (02-2145-9650)
<공동>	수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이옥진 (02-2240-2200)
		담당자	부 장	김길성 (02-2240-2210)
<공동>	대부금융협회	책임자	전 무	이재선 (02-6710-0802)
		담당자	부 장	심용식 (02-6710-0810)